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영종캠페인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한강 시민공원여의도지구에서는
 '2007 서울세계꽃축제'가 10월 13일 열린다. 한국·일본·미국 3개국의 불꽃 쇼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라디오 공개방송과 더불어 진해대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부산 시청 녹음광장에서는
 '내사랑 부산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행복한 부산,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 대회는 10월 13일 열리며, 초등학교에서 일반인까지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참가 신청은 미리 해야 한다. (051)888-2171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 가례전'이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세자빈 면복과 왕세자 면복 등 재현 복식 49점이 전시되고 혼인예식 절차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조선시대 의복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시. (02)3704-3114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사이언스 터널 특별전'이 펼쳐진다. 태초, 나노, 생명, 감각, 미래, 우주라는 6개의 큰 영역으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는 은하수의 형성과정, 블랙홀이 행성을 이탈시키는 과정, 거대한 태양이 폭풍이 치는 모습, 직립보행의 이점, 시간과 공간의 한계, 현대와 미래의 기술 등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참조.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소리, 몸짓'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린다. 회귀한 판소리 음반 청음, 명창들의 공연은 물론이고 어린이 소리관, 개고 판소리 등의 재미있는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063)287-65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앗 따가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김포로 나온 영종이(서울 잠원동·11)는 무심코 밤송이를 만졌다 가시에 찔렸다. 벌어진 밤송이 사이로 보이는 알밤을 열려 꺼내려다 생각보다 뾰족한 가시에 눌렸다. 밤송이의 가시를 실제로 찔려보고 나니 생소하고 아프기는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영종이는 밤송이를 따로 싸들고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가을 들뜬이 물들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햇살 속에서 알알이 영글고 있는 곡식들이 춤춘다. 시골길은 이미 '황금물결'이다. 온갖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요즘은 사시사철 먹을 것이 많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원하는 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영근이네 가족처럼 가까운 근교로 떠나 '수확(收穫)'이 무엇인지 몸소 느껴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열매가 어떻게 익어가고 그것들을 얻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수확체험도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쉽고 편한 시대에 사는 대신, 옛 사람들이 느꼈던 소소한 일상적 체험들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직접 따는 과일, 들에서 직접 훑어보는 벼이삭의 느낌을 세상의 어떤 커다란 시장에도 없다. 자연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연 속에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감정적 경험, 한 번쯤 해볼 만하다.

□ 지역 축제 즐겨보세요
 역시, '밤' 하면 충남 공주, 공주 하면 밤이다. 공주시에서는 매년 '공주알밤축제'를 연다. 올해는 10월 14일이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이며 '고소! 달콤! 오도독! 공주알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밤나무 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밤송이를 발로 비비며 밤을 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알밤축제에서는 알밤 줌 체험 외에도 알밤 왕 선발, 알밤 굽기, 밤 음식전시 및 시식회, 알밤 전시 및 품평회, 알밤 꾸미기 대회, 밤송이멀리던지기, 밤 던져 넣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밤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공주시청 041-840-2818)
 이에 앞서 또 하나의 밤 축제가 있다. 바로 9월 30일에 진행되는 '충주 밤 축제'다. 공주가 전통적인 밤 생산지로 유명하다면 충주는 전국 최고의 재배기술로 생산된 충주 밤을 자랑한다. 밤나무는 그냥 크는 것이 아니냐고? 이는 충주 밤 축제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부심을 갖고 밤나무 재배 기술을 직접 볼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장소는 충주시 소재충동초등학교 교정이다. 가족명랑운동회에서 밤 풍선 만들기, 코팸소 달리기, 우리가족만세 등의 6주 경기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 밤 비교 전시회, 우수 밤 품평회전시, 바람개비 만들기, 밤 양초 만들기 체험 등 비교적 전문화된 밤 축제들 즐길 수 있다.(충주시 산림복지과 043-850-5814)
 대추는 처음부터 쪼글쪼글하고 검붉은 색깔이었

밤 따고 고구마 캐며 동심도 영글어요

가을 '수확체험' 떠나보세요~



과수원도 보고 사과도 따고 온가족 가을나들이로 제격이다.



몇 말 남지않은 벼를 털어내고 새끼꼬기를 체험하는 아이들.

을까? 대추가 마치 사과처럼 아삭한 단맛이 나는 열매라면? **논산 연산**에서 펼쳐지는 **대추축제**에서 확인해보자. 가을햇살에 잘 익은 대추 맛도 볼 수 있다. 10월 5-6일 연산 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에서는 비단 대추 따기뿐만 아니라 대추 공예, 대추 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까지 즐길 수 있다. 또 다양한 대추 먹거리도 준비된다. 풍물놀이, 콘서트 등은 덤이다.

가을의 정취에서 사과향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펼쳐지는 **'문경 사과축제'**에서 달콤한 사과 향을 느껴보자. 기간도 10월 12-21일로 다른 축제에 비해 여유 있다. 또 그저 사과 따기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축제 성격인 점도 타 축제와 다른 점이다. 행사기간 중 사과발전세미나·품평회·전시회 등 학술 행사가 펼쳐진다. 또 문경 시민들을 주축으로 '시와 사과와 사람과의 만남', 어린이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을 진행하며 가을 시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가족건강 경기대회 새재가요제 등도 운영된다. (문경시청 054-550-6254)

□ 찾아보면 수확체험 학습 많아요

이런 굵직한 지역 행사 외에도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많다. 특히 수도권 인근인 김포·용인·일산 등지에는 벼 베기, 고구마 캐기 등을 하루 코스로 할 수 있는 수목원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마을단위로 이뤄지는 행사가 많으므로 일정과 인원,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수확체험 장소를 탐색해 각자 찾는 것이 좋다.
 캠프나라 김병진 팀장은 "수확체험은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효과가 높아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통해 농작물에 들어간 정성을 느끼면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사진=캠프나라 제공

참고 사이트
 한국청소년캠프협회
www.icamp.or.kr
 수확체험 나들이
www.nadri.or.kr
 팜 스테이
www.farmstay.co.kr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행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사계절 단화
 발·마춤형 제작
 특·무명
 풍산동 99%
 지압의 필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풍산동 99%
 마이오일리온
 크크제작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물
 지압발가락
 발가락 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 보시 하실 분 상당 환원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은 검색해 보세요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풍세상 053)426-7300 • 전주 :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꽃다발교점 054)655-2525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마가목 가지로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